

『韓国語教育研究』(第11号)別刷

ISSN 2186-2044

【寄稿論文】

한일 대학입시 개요의 일고찰

김 세덕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21年9月

한일 대학입시 개요의 일고찰¹

김 세 덕

우리나라의 대입 정책의 목적과 내용은 정권별, 시대별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해방 이후로부터 1960년대까지는 대체적으로 “대학별 단독시험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걸쳐서는 대학별 단독시험제와 국가고사제를 병과하는 “혼합제”가 채택되었다. 1980년대 이후로는 “국가고사제”가 뿌리를 내려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자율성이 상실되어 왔다. 1994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 복수지원제가 도입되면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회복되고 학생의 대학선택권이 확대되면서 대입제도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 5.31 교육개혁에 의해 1997학년도 새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도입되면서 학생선발의 정책기조가 시험에서 전형으로 전환되어 단순한 시험성적에 의한 학생선발 관행을 지양하고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게 되었으며 전형요소의 유형과 반영 방법, 모집 절차, 그리고 모집시기 등이 더욱 더 자율화, 다양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서론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15차례 이상 변화하였으며, 해방직후 대학별 단독 고사제가 9년간 지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의 제도가 5년을 지속한 경우가 드문 상황이다. (양승실 외, 2003:31).

술한 변화 속에서도 대입제도의 골격은 대학별 고사와 국가 구사,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잦은 대입정책의 변화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특징은 새로운 대입제도의 수립에 앞서 기존 제도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그때그때의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임시방편으로 새로운 대입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라 사료된다.

현 정부의 대입 정책은 대학이 우수한 학생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

¹ 본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현안보고서(OR) 한국과 일본(김세덕)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 되었음.

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입전형 을 대폭 간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 되고 있다(양승실 외, 2003:31).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을 이해·개발하고 창의적·융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의 양성과 발굴은 개인 행복과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시험성적 중심의 학생 선 발에 따른 단편적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과 학생 선발이 절실하다.

대학 교육은 고교 졸업생 전체의 질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대입전형이 정 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고교와 대학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도 높은 대입전형이 요구된다(양승실 외, 2003:31).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일본의 대입 정책 개요

2.1 대입 정책 배경 및 특징

일본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2개의 섹터로 나누어진다. 이 2개의 섹터는 대학입학자 선발 입시에서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어 양자의 입시제도의 변위 과 정도 많이 다르다(繁榘算男 외, 2014:1-3).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나라의 통제를 받아 입시제도에 있어서도 공통테스트를 축으로 발전해 왔으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각 대학이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독자의 학풍을 살려 각 대학에 맞는 입학자 선발을 하여 왔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나 제도 자 체도 마이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화 하여 온건 사실이다(繁榘算男 외, 2014, 16-22).

일본의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민의 공통교양을 내용으로서 「국민의 통합」을 형성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 있고 대학에서의 교육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2개의 시험제도는 그 사회가 공통교양으로서 또는 전문교육으로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는 과학기술이 매일 진보하여 변화가 심한 사회 이며 교육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2.2 대입 정책 목적 및 내용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대입정책의 목적을 각 대학(단기대학을 포함)은 입학자를 선발 할 때 입학 지원자가 대학교육을 받을 능력과 적성 등을 다면적으로 판정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과 특별 지원학교의 고등부를 포함) 교육을 문란하지 않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문부과학성, 2019).

고등학교단계에서 육성되는 학력의 중요한 요소(기초적·기본적인 지식·기능,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을 포함한 학습 의욕)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충분히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각 대학은 해당대학·학부 등의 교육 이념, 교육 내용 등에 따른 입학자 수용방침(입학 정책)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입학 후의 교육과의 관련을 충분히 고려한 입시방법의 다양화, 평가 척도의 다원화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자의 선발은 조사서의 내용, 학력검사, 소논문·면접과 기타의 능력·적성 등에 관한 검사, 자격·검정 시험 등의 성적, 그리고 대학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해 입학 지원자의 능력·적성 등을 합리적으로 종합해서 판정하는 입시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이를 「일반입시」라고 함).

2.3 대학진학률 및 대입 문화

2009년도부터 4년제 대학에의 진학률이 처음으로 50%을 넘었다. 이것은 바라면 반드시 어디의 대학에나 입학할 수 있는 「대학 전입(全入)시대」 「대학의 세계화」라고 부르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그 메리트나 결점(demerit)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대학 진학률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 후반 대학 진학률은 약 25%정도로 추이해 왔다. 그 이후 1990년대 전반부터 대학 진학률은 완만하게 상승을 계속하고 2009년도에 처음으로 50%을 넘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대 후반에는 약 4명에 1명꼴로 대학에 진학 했던 비율이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명에 1명이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22세 인구에 주목하면 1993년에 가장 많아, 약 81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에 대해 2009년에는 19~22세 인구는 약 513만 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1990년대 전반부터 대학 진학률이 상승을 계속하는 한편 19~22세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1993년 2000년, 2009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수의 추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9~22세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93년의 대학생 수는 약 240만 명이다. 중간 시기인 2000년의 대학생 수는 약 275만 명으로 대학 진학률이

50%을 넘은 2009년의 대학생 수는 약 285만 명이다.

이 결과로 대학 진학률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대학생 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의 대학 진학률은 약 25%이었고 2009년의 대학 진학률은 약 50%이었다. 대학 진학률만을 보면 약 2배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의 대학생 수는 그다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대학 진학률이 50%을 넘은 이유를 추측해 보면 1990년대 전반부터 19~22세 인구는 일관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대학의 수용 학생 수(대학입학자수)는 일정하게 지속되고 있다. 그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50%을 상회하는 현상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2.4 대입 정책의 주된 방향

일본에서는 국공립대이외에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학 정책 운영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학 진학률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대학 진학률은 어떻게 변화될까? 이 점에 대해서는 19~22세 인구와 대학수와의 관련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의 대학수의 추이를 보는 것이다. 1985년에는 450개교 정도이었던 대학수가 2009년에는 800교에 가깝게 증가했다. 원래는 19~22세 인구에 맞춰서 추이되어야할 대학수가 완만한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의 수용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대학 진학률의 상승이 된 이유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대학 진학률에 관해서는 대학수의 변화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여름의 시점에 있어서 각지에서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후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존속이 곤란해지게 된다고 본다. 이것 때문에 19~22세 인구의 대학입학이 감소하는 것부터 앞으로 대학 진학률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 예상된다. 이후 잠시 동안 대학 진학률은 50% 가까이를 유지한다고 추측되지만 그 후는 저하되고 적절한 비율로 전환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대학 진학률의 상승에는 대학수의 증가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대학 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증가 경향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경쟁력이 모자란 대학의 존속이 곤란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로부터 앞으로의 대학 진학률은 대학의 통폐합 상황에 맞춰서 저하되고 그 후는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

3. 고등학교 내신 산출 및 대입 활용

3.1 고등학교 내신 유형

일본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및 대입 활용은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따라 상이하
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및 대입 활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1 교과 활동

일본의 고등학교는 3년 과정으로 교육과정에 의해 크게 수업을 하는 시간대 계절, 방
법 등의 차이에 의해 「전일제의 과정」, 「정시제의 과정」, 「통신제의 과정」의 3종류
의 과정이 있다.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먼저 전일제의 과정을 보면 아침 8시 전후부터 오후 4시 반 정도까지의 하루에 학습
하는 과정으로 일반적 고등학교라고 하면 이 과정을 가리킨다.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고 학교 교육법에 의해 수업 연한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학년제가 많
지만 최근 단위제로 변경된 학교도 많아, 2013년도는 전 4626교 가운데 단위제가 301
교(7%) 이었다. 재학 중에 고등학교졸업과정인정시험을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졸업율
은 92% 전후가 된다. 2012년도의 공공·사립 고등학교의 중퇴자수는 89,461명이고 중퇴
이유는 「학교생활·학업부적응」이 38.6%로 가장 많고, 뒤이어 「진로변경」 34.9%, 「학
업부진」 6.2%의 순이 되고 있다. 중퇴자 전체 가운데 1학년이 53.0%을 차지하고 2학년
30.5%, 3학년은 8.8%이다. 일반적인 경향으로서는 교칙이 엄격하고(특히 사립고), 교복
이외에 체육복 등이 있고, 현역입학자(대부분의 학생이 15세~18세)가 많다는 특징이 있
다.

둘째 정시제의 과정은 야간이나 특별한 시간대 또는 계절에 있어서 수업을 하는 과정
이다.

셋째 통신제의 과정은 통신에 의한 교육을 하는 과정이다. 학교 교육법에 의해 수업
연한은 3년 이상이고 2019년도는 3년제는 110과정, 4년제는 54과정이 있었다.(일본 문
부과학성, 2019)

여기서는 전일제 과정의 고등학교를 예를 들고자 한다.

오사카의 건국고등학교 교육계획서와 고베의 게이메이학원고등학교를 보면 교과목 편
성 및 운영을 위한 절차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면적 교육과정 변화의 요구에 기본적으
로 따르고 있다(백두학원, 2020). 즉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과담당, 담임 등으로부터

교육과정(교과목) 변경 의뢰가 있을 때 교과 회의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시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 재검토를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단 필수과목은 가르치는 시기(학년)의 변경, 표준단위수 이상의 과목 감소단위정도의 변경만 가능하다. 선택 과목은 가르치는 시기의 변경, 감소 단위 등의 변경과 대학 수험 등과 크게 상관이 없을 경우, 수강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교과를 없애고 새로운 교과를 설정할 수 있다. 실시는 다음 년도부터 시작한다.

각 학과(敎科)의 지도 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과를 살펴보면 국어를 적절하게 표현해 이해하는 능력을 육성하고 사고력을 키우고 풍요로운 심정을 기르는 것에 힘을 쓰고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또한 언어감각을 갈고 닦아 언어문화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고 있다.

지리역사과의 경우를 살펴보면 2학년 「세계사B」(필수3단위)는 「근현대사」 다시 말해 16세기(르네상스)로부터 20세기 초두(제1차 세계대전까지)을 취급한다.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역세계(문명권)이 유럽 주도로 일체화해 가는 과정이며 근현대사학습의 중심을 차지한다. 근대 유럽 세계와 근대 국가 체계의 성립 시민혁명과 서구시민사회의 출현 제국주의 시대와 민주주의의 대두 등이 중점항목이 된다.

3학년 「세계사B」(필수선택·자유 선택4단위)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각 지역세계(문명권)의 역사와 20세기의 현대사를 통사하고 또한 세계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사도 취급한다. 수험 대응의 내용이며 제2학년의 학습도 넣어 세계사학습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 각국 역사 유럽 각국 역사, 북미·중남미사, 아프리카사, 태평양 제국 사에 관한 통사, 20세기의 있었던 2개의 세계대전과 현대세계의 성립이 중점항목이 된다.

공민과의 경우는 제2학년 때 「윤리」 2단위, 제3학년 때 「정치·경제」 2단위를 전학생 공통으로 이수시킨다. 또한, 제3학년에서는 문장유형의 필수선택 강좌에 「정치·경제」(3단위)를 설정하고 자유 선택 강좌(2단위)로서 「윤리」, 「정치·경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 과목의 학습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세 삶의 태도에 관한 자각을 키우고 민주적, 평화적인 국가사회의 능력 있고 쓸모 있는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있다.

필수정치경제에서는 주로 정치 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민주정치 원리, 제도, 기구나 국제정치의 이해를 깊게 한다. 또한 선택 정치경제에서는 경제의 구조, 국제경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 나간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동시에 그것을 발표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매시간의 수업에서 최근의 현상에 대해서 발언을 추구한다.

수학과에서는 수학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법칙의 이해를 깊게 하고 현상을 수학적으로 고찰해 처리하는 능력을 높인다.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태도를 기른다.

이과에서는 자연에 대한 관심과 탐구심을 높이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 관찰·실험 등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해 거기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과학적인 자연관을 기르고 싶다고 생각한다.

보건체육과에서는 1학년 때 운동에 대한 흥미·관심을 높이고 운동의 기초를 배우는 동시에 체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규율 있는 집단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2학년 때는 자기의 능력에 따른 운동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학교생활의 중견으로서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3학년 때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계획 실행하는 것으로 운동을 즐기는 동시에 자신에 적합한 운동을 알고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과에서는 먼저 음악에 관해 살펴보자. 음악의 기초 지식과 충실을 도모하고 감상이나 연주를 통해서 음악적 이해를 깊게 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주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감동할 수 있는 노래연주를 추구한다. 미술과목은 미술의 실습을 통해서 학생 각자가 시각적인 표현력을 기르고 작품을 만들어 내는 기쁨을 알고 그것들을 통해서 풍부한 삶을 배우는 것을 교과목의 목표로 하고 있다. 서도과목은 기능습득과 교과교양의 학습을 주안으로 한다. 고등학교의 서도과에서 배워야 할 사항을 나선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차분히 교습한다.

외국어과에서는 외국어를 통해서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도모하려고 하는 태도의 육성을 꾀하고 정보나 상대의 의향 등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생각 등을 표현하거나 하는 실천 소통 능력을 기른다. 가정과에서는 인간이 생애에 걸쳐 「마음도 몸도 건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학습해 가는 교과이다.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고 매일의 생활을 여유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 의식주 그리고 자신의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 및 관련되는 직업에 필요한 능력과 주체적, 실천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과를 살펴보면 「정보」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방법·기술의 습득 등의 「정보 활용의 실천력」을 습득하는 것뿐만만의 교과가 아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의 구조 공개키 번호 방식이나 디지털 서명 등의 보안 기술의 구조를 「정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익히는 동시에 저작권이나 산업 재산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존중,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공개, 정보를 적절하게 읽어내는 힘인 미디어 리터러시 등 「정보사회에 참가하는 태도」를 습득하는 것도 이 교과의 목표다. 이 3개의 능력을 균형있게 익히는 것이 건전하고 풍요로운 정보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자질을 형성할 수 있다.

(2) 평가방법(상대, 절대)

일본의 고등학교에서의 성적평가의 평가는 다음의 자료에 근거해서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① 정기고사: 중간고사나 기말 고사 등 년 5회 있는 고사, ② 연구물·리포트·노트·숙제 등, ③ 제작물·실기 등, ④ 평소의 학습 태도, ⑤ 출석 상황, ⑥ 기타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라고 해서 각 학기의 평정은 100점법으로 표시한다. 건국고등학교의 클래스 편성은 특별 진학코스와 종합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성적 환산 시 특별진학 코스 최하위 학생의 성적은 종합코스 최상위 학생보다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국고등학교의 성적 평가는 각 과목별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각 학기 성적을 100점 만점법 학년 평점은 5단계 법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베 게이메이학원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3) 평가 결과 기록(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급, 기술식)

일반적으로 교원(대부분은 학급담임)이 이하의 내용을 기재한다: ① 학생성명, ② 교장 성명, 담임성명, ③ 특별활동(학급의 담당자, 이동화·학생회활동, 부활동·클럽 활동)의 기록, ④ 각 교과에 관한 학습 상황 및 평정, ⑤ 성격 등의 관찰, ⑥ 건강상태, ⑦ 학급담임의 소견 등.

각 교과에 관한 학습 상황 및 평정은 5를 최고로 하는 5~1의 5단계 평정(A·B·C의 3단계 평정, 10을 최고로 하는 10~1에 10단계 평정도 일부에 있다)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입학자 선발(입학시험 등)에 대해 대학 등의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 지도요록에 기초를 두고 기재·발행된 조사서가 고사 자료에 사용된다. 또한 「생활통지표에 기록되는 평정」과 「지도요록에 기록되는 평정」은 동일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특히 상대평가를 하고 있었던 시기는 「1」의 평정을 생활통지표에 적어 학습자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도요록에 「1」이라고 평정을 담고 생활통지표에 「2」라고 평정을 담는 경우도 있었다.

오사카 건국고등학교 및 고베 게이메이학원고등학교에서는 기말평가 후에 성적표를 각 가정에 발송 하고 있다. 평가 결과 기록은 원점수와 평균을 활용 해 기술하고 있다.

(4) 평가 등급 수

위에서 전술한 것처럼 평가 등급 수는 5단계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오사카 건국고등학교 및 고베 게이메이고등학교에서는 평정의 평균점은 60점 정도로 학년말의 평정은 각 학기의 평정을 평균으로 하고 있다.

(5) 상대등급, 절대등급

오사카 건국고등학교 및 고베 게이메이학원고등학교에서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등급은 상대등급을 우선적으로 정해 사용하고 있다.

3.1.2 비교과 활동

일본 대학 입시에서 비교과 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곳은 사립대가 대부분이다. 보통 사립대학의 입시 제도를 보면 AO입시나 추천 입시 등이 있다. 이러한 대학 입시에서 비교과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고등학교마다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리더십활동, 방과 후 활동, 체육 예술 활동 등을 경험할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1) 창의적 체험 활동

학생이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체험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클럽활동(학교에서의 스포츠 활동이나 문화 활동 등)의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취미생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하는 등의 활동 등 그야말로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입시에 반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된다.

이러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고등학교에서 직접 제공하기도 하는데 오사카 건국고등학교의 경우 수학여행 및 한국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교류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기르고 고등학생들은 한국으로 수학여행 시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다(백두학원, 2019).

그리고 고베 게이메이고등학교에서는 여름방학에 여름캠프를 실시하거나 하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자주 갖고 년2회 이상의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부키나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게이메이학원 2019).

(2) 독서활동

오사카 건국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15분 동안 책읽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 독서대회 다독자 및 우수 독서 감상문 시상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를 장려 하고 있다.

고베 게이메이학원고등학교에서는 2학년을 대상으로 「독서과·학술연구」라는 특별활동을 실시 해 학술연구에 필요한 지정서를 지정 해 읽고 있다. 그 지정서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근대화의 정신구조」나 「간디 자전」 등이 있다.

(3) 수상실적

교내외에서 수상한 실적은 학생의 성취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중 하나이다. 학교 차원에서 대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수상실적을 쌓는 것을 독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사카 건국고등학교의 전통예술부, 배구부, 취주악부는 관서지역대회 및 일본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다수의 수상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백두학원, 2013). 그리고 고베 게이메이학원고등학교에서도 음악부와 미술부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해 좋은 수상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게이메이학원, 2014).

(4) 자격증

오사카 건국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과 일본어능력시험대비반, 영어자격검정대비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도로 해마다 자격증 취득률이 80%에 도달하고 있어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게이메이학원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지원 하는 과정은 없고 영어검정대비에 개인적으로 도전하기로 한다.

(5) 리더십 활동

오사카 건국고등학교의 경우 종합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리더십 강화 관련 외부강사 초청 강연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중 한국대학생 해외봉사단원들이 건국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일주일동안 조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고베 게이메이학원고등학교의 경우 위와 같은 형태의 리더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도 다른 비교과활동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어필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운동 팀에서 주장을 맡아 활동하였거나 하는 경험들 역시 지원자의 리더십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6) 방과 후 활동

오사카 건국고등학교의 방과 후 활동은 교과학습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으로 다양한 예체능 과목을 설치하여 전교생의 약 80%가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교내 우수 동아리는 전통예술부, 배구부, 취주악부, 축구부, 유도부, 테니스부, 농구부, 야구부, 미술부, ESS부, 탁구부, 골프부, 댄스부 등 총 13개의 동아리가 방과 후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고베 게이메이학원고등학교의 경우도 방과 후 활동이 많아 80%이상의 학생들이 자율

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게메이학원, 2014).

(7) 체육 예술 활동

연극, 음악, 무용, 하키, 트랙, 체조, 회화, 사진, 창의적 글쓰기, 코러스, 밴드, 오케스트라, 앙상블, 미식축구, 야구, 하키, 트랙, 체조, 수영, 축구, 스키, 치어리딩 등 다양한 활동들이 여기 포함된다.

오사카 건국고등학교의 배구부는 전국대회에 출장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2012년도의 춘계 종합대회 1차 예선 1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춘계 종합대회 오사카 예선대회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2011년도에는 전국 고등학교 체육대회에 출전했으며 오사카후 신인대회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고베 게이메이학원고등학교이는 연극부와 음악부 그리고 무용부와 같은 예술부와 럭비나 미식축구와 같은 체육계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 되어 있어 누구나 참가 참여 할 수 있다.

3.2 대학 입시에서의 내신 반영 사례

3.2.1 제1대학 입학 전형 유형 개요(사립 간세이가쿠인대학)

(1) 목적

간세이가쿠인대학(関西学院大学)은 효고현(兵庫県) 니시노미야시(西宮市)에 있는 종합 대학이다. 간세이가쿠인대학의 입시목표는 각 학부별로 달라 여기서는 국제학부의 입시에 대해 설명 하고자 한다. 국제학부 입시에 목적은 「국제성의 배양」 이라고 하는 교육·연구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정에 관한 과제의 이해와 분석」 을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통해서 「국제성」 (세계이해, 국제이해를 위한 능력)이라는 「인간성」 을 갖춘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적인 비즈니스·시민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그 교육·연구의 목적은 학생이 높은 외국어능력을 습득하고 세계의 각 지역을 여러 가지 각도(특히 인문·사회과학의 관점)로부터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반영 내용 및 기준

입시 내용으로서는 표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일은 없다. 따라서 수험생 사이에서 학력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입시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합격 최저점은 어느 학부나 60~70%이기 때문에 7할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선택 과목(학부 개별 일정에서는 일부의 학부는 영어도 포함한다)에는 점수보정이 걸려서 근본점이

내려가므로 근본점은 합격 최저점보다도 몇 십 점정도 높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문제의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높았을 경우는 근본점이 오를 경우도 있다). 입시형식(추천 내부 진학을 제외한다)로서는 「전학(全學)일정」 「학부개별일정」 「간세이가쿠잉대학 독자 방식 일정」 「센터시험 이용입시」의 4형식이 있다.

먼저 전학(全學) 일정의 입시를 보면 모든 학부가 2월 1일, 2일의 어느 쪽인가에 행하여진다.(이틀 모두 행하여지는 학부도 있다). 문제는 영어와 국어가 필수과목으로 지리역사 혹은 수학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 배점은 필수과목이 각각 200점, 선택 과목이 150점이다. 이과는 영어와 수학이 필수과목으로 이과(물리·화학·생물)로부터 1과목을 선택한다.(이공학부 물리학과와 화학과는 생물을 선택할 수 없다). 배점은 각 과목 당 150점이다(종합정책학부는 영어가 200점, 이공학부 수리과 학과와 선진 에너지 나노 공학과는 수학이 200점). 영어와 국어와 지리역사는 전문 마크식, 수학과 이과는 전문기술식이다.

학부 개별 일정은 2월 3일, 4일, 6일, 7일에 행하여진다. 입시일정·배점은 학부에 의해 다르다. 문제는 영어가 필수과목으로 국어·지리역사·수학에서 2과목을 선택한다.(지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문학부만이고 지리역사로부터 2과목을 선택할 수는 없다). 영어·지리역사·수학의 조합 하면 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응시할 수 있다. 둘째시간은 120분으로 선택 과목 2과목을 동시에 본다. 전학(全學) 일정은 전 문제 마크식인 영어와 국어는 이 일정에서는 일부 기술식이 된다. 그 이외의 과목은 전학(全學) 일정과 같다.

간세이가쿠잉대학 독자방식일정은 2월5일에 모든 학부에서 행하여진다. 과목은 영어·수학뿐이다. 또한 통일 시험 병용 형식(간세이가쿠잉대학 영어 병용형·간세이가쿠잉대학 수학 병용형)도 있다.

센터시험 이용입시는 타 대학의 방식과 다른 특수한 배점이 없기 때문에 각 과목을 올라운드(all-around)로 득점 할 필요가 있다. 그 해에 따라 다르지만 합계 80 퍼센트 정도가 경계선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센터시험이 어려운 해는 합격자가 차지하는 입학자의 비율이 예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입시에서 합격자를 늘려 센터 이용의 합격자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3) 반영 방법

전학(全學)일정, 학부 개별 일정, 간세이가쿠잉 대학 독자방식일정의 모두는 방식은 틀리지만 문제경향 형식은 대단히 닮아 있다.

영어의 문제구성은 긴 문장 종합 문제가 3문제, 문법·어법문제가 1문제, 기술 영작문 문제가 1문제, 회화 문제가 1문제의 계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시험 시간 90분으로 표준 수준의 문제 량이다. 문법·어법문제는 물론 독해 문제의 설문으로서도 문법지식을

문는 설문이 비교적 많다. 즉 문법·어법의 대책 없이 간세이가쿠잉대학의 영어공략은 있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문법·어법의 지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다. 입시 직전까지 문법·어법의 문제집으로 비어 있는 곳 보충 문제와 어구 정비문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 회화 문제·긴 문장 종합 문제도 가장 많은 설문 형식은 비어 있는 곳 보충 문제다. 문맥, 어구의 지식, 문법·어법과 같은 다양각색 형식의 설문이 있고, 선택사항을 보아서, 풀리는 문제로부터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휘력을 묻는 설문도 최근 많아지고 있으므로 입시 직전까지 단어와 관용어의 확인을 하는 것도 좋겠다.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이 엄두가 안 나는 어려운 문제는 먼저 출제되지 않는다. 얼마나 학습을 해 왔는지가 확실히 반영되는 조형이 되고 있다. 시판되고 있는 참고서 과거문제 연습을 통해서 확실히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어는 현대문 1문제 고문 1문제의 큰 문제가 2문제 나온다. 간세이가쿠잉대학의 시험 과목 안에서도 가장 풀기 쉬운 과목이므로 주위에 차이를 붙여지지 않도록 7할 이상을 목표로 하면 좋겠다. 현대문의 출전은 평론이 대부분이지만 철학·사상으로부터 정치·경제학·환경론·정신 병리학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복잡하다. 고문도 폭 넓은 장르로부터 출제되고 있어서 빈출 출전이라고 해야 할 것은 특히 없지만 내용과 설문은 평이하다. 전체적으로 현대문·고문과도 해마다 문제의 수준이 떨어져 역화 경향에 있어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아무 것도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

지리역사(일본사·세계사·지리)는 용어집 이외는 먼저 출제되지 않으므로 그 이상 용어를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용어집의 (1)이나 (2)의 용어도 출제되는 것이 있어서 용어집은 거의 마스터해 두어야 한다.

문계수학은 큰 문제가 3문제이며 큰 문제 1, 2문항이 소문제 2문제의 완성식, 큰 문제 3은 기술식이다. 미·적분법이 빈출하지만 소문집합 형식의 문제가 2문제 있기 때문에 확률, 삼각비·삼각함수, 수열 등 광범위하게 출제된다. 문제 수준은 통일 시험 수준이다. 간세이가쿠잉대학 독자방식일정은 해답 시간이 90분 있지만 다른 일정과 문제형식은 변함 없다. 단 다른 일정보다도 큰 문제 3이 어렵다고 본다.

(4) 반영 절차

수험이 끝나면 바로 채점에 들어가 점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 된다. 고등학교의 조사서는 일반입시에 있어서는 사용되지 않고 AO입시나 추천입시에서 사용 된다. 2019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6,590명이다.

3.2.2 제2대학 입학 전형 유형 개요(국립 고베대학)

(1) 반영 목적

고베 대학은 효고현 고베시에 있는 국립대학이다. 세계에 열린 국제 도시 고베(神戸)에 입지하는 대학으로 국제적이고 첨단적인 연구·교육의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구축해 온 학문을 계승하는 동시에 부단한 노력을 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려고 하는 다음과 같은 학생을 추구하고 있다. ① 진취의 기질이 많고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학생 ② 왕성한 학습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학생 ③ 늘 시야를 넓게 펴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 학생 ④ 소통 능력을 높이고 다른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존중하는 학생

(2) 반영 내용 및 기준

역사적으로 구상업대학을 루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계의 난이도가 의학 부 의학과를 제외하고 이과보다도 높은 경향이 있다. 입시에서는 5교과의 기초적 사항을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센터 시험의 비중도 결코 낮지 않고 2차 시험도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전이 어렵다(경영학부의 일부를 제외한다). 센터 시험에서는 8할 정도의 득점이 없으면 합격은 힘들다. 특히 경영학부의 일부에서는 센터 시험 득점에 의해 합격 여부가 확정나기 때문에 센터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은 치명상이 된다.

(3) 반영 방법

2차 시험으로 출제되는 문제 자체에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출제되지 않고 그 때문에 1과목이라도 망치면 거기에서 다른 수험생과 차가 벌어져버려 합격이 멀어져버린다. 특히 수학에서 그 경향이 강하다. 전체적으로 문제 수에 대하여 시험 시간이 짧다. 한편 경영학부는 2012년도부터 후기 일정 입시를 폐지했다. 이것은 교토대학 오사카대학과 동일하게 그전의 국립대 1기교에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시험은 긴 문장 독해 문제가 3문제 일본식 문장 영역/자유영작문이 1문제 출제되어 이것을 시험 시간 80분 이내에 풀어야 한다. 고베(神戸)대 영어는 국공립대학의 입시에서는 진귀한 시간과의 격투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단어 문법사항·구문의 지식을 있는 정도의) 속독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CD등에서 영문을 듣거나 영문을 소리 내어 읽거나 하는 등 해서 익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긴 문장 독해 문제는 본문으로부터 생략된 어구를 기호로 묻는 것이나 내용일치, 내용설명, 부분 일역의 문제가 출제된다. 기본적으로

평이한 것이 많지만 내용설명에 관해서는 문제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어느 개소에 맞는 것일지를 파악하고 대답해야 하다. 이것은 형을 바꾼 부분 일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작업이며 어느 정도의 엄밀함이 필요하다. 일본식 문장 영역·자유영작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내에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기억이 모호한 것을 사용해서 써 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하여 표현 방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문제연습을 하거나 예 문집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 고베 대학의 「영어 15년」을 보고 틀린 것을 수정도 할 수 있으면 오사카대학, 도호쿠 대학, 나고야(名古屋)대 등의 영작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어려울 지도 모르지만 영작문은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질이 높은 영작문의 연습 과 복습이 효과적일 것이다.

문과 수학의 경우는 시험 시간 80분에 3문제 출제된다. 표준적인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가장 차가 벌어지는 과목이므로 수학에 자신이 없는 수험생은 실전까지 3문제 중 2 문제는 끝까지 풀어서 반점을 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된다. 수학의 배점이 높은 경제학부라면 나빠도 2문제 이상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배점이 낮은 문학부나 국제문화학 부지망으로 영어에 자신이 있으면 1문제를 풀고 1문제를 도중까지 풀어도 합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역시 어느 학부라도 2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 출제 경향으로서는 미적분·벡터·수열이(문계수학일반으로 말하면 확률도) 빈출 분야다. 2005년까지는 이 3분야 안에서 확실하게 2문제를 출제된다고 하는 경향이었지만 2006년, 2007년은 다른 분야에서 2개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분야를 밸런스 있게 잘 학습해야 한다. 이과 수학의 경우는 5문제가 출제된다. 확률의 문제가 출제되는 가능성이 높고 어려운 문제다. 각 설문과의 (1)의 문제는 답을 하고 최저라도 6할 정도의 점수는 확보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국어 문제는 100분 이내에 현대문(평론), 고문, 한문에 3문제(경영학부는 80분이내로 현대문과 고문만)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문의 문장 길이(인용문도 길다)는 특징적이어서 100글자이상의 기술 문제가 현대문과 고문 각각 항상 부과되어 한문도 50글자이상의 기술 문제가 확실하게 나와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이다.

이과의 물리 과목은 3문제 출제되고 1문제는 역학으로부터 1문제는 전자기로부터 거의 반드시 출제되어 1문제는 파동 열역학의 어느 쪽인 가로부터 1문제 출제된다. 시간은 2과목 120분(학부학과에 따라서는 1과목 60분의 곳도 있다).

다른 난관대학의 입시문제와 달라 고베대 물리에서는 어려운 계산은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답에 이르기까지의 도출 과정을 기술해야 하다. 일반적인 입시대책문제집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으면 대처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 교과서를 사용해서 공식의 도출 과정을 확실히 익혀 두는 것이 고베대 물리공략에의 한 걸음이다.

이과의 화학 과목은 4문제 출제되고 경향으로서는 1문제는 이론분야에서 1문제는 무

기분야에서 1문제는 화학의 유기분야에서 1문제는 화학II의 유기분야에서의 출제 된다. 시간은 2과목 120분(학부학과에 따라서는 1과목 60분의 곳도 있다).

1문제에 약 15분정도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문제처리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유기분야의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다. 유기분야를 버리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한다.

법학부 후기의 작문시험은 시험 시간은 3시간 있어 충분하다. 초안 용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잘 이용하고 패시지(passage)를 하나 읽으면 초안 용지에 정리하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전부 끝까지 읽고 흐름을 생각하면서 배치를 정하면 된다.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교대에 쓰는 것이 아니고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2단락구성으로 하고, 그 때 지정 문자수를 패시지(passage)수로 나누어 두고 각 패시지(passage)를 정리할 때의 평균 자수를 결정해 두면 된다.

(4) 반영 절차

고베대학에서는 인간행동학과에서 17명과 의학부에서 25명 그리고 해사과학부에서 20명을 뽑는 AO입시가 있고 추천입시도 경제학부와 경영학부 그리고 의학부와 해사과학부 그리고 농학부에서 실시된다. 이 경우 고등학교에서 발행되는 조사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조사서는 일반 입시에서 동점자 처리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공립대의 입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 입시의 경우 시험이 끝나면 바로 채점이 이루어져 당락이 결정 된다.

4. 결론

4.1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가) 정책 상의 시사점

일본에서는 10여년간 「과열된 수험 경쟁의 완화」를 목적으로 대학입시의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추천 입학의 확대나 새로운 선발 방법인 AO입시의 도입 등 대학입시에 있어서 다양화·개성화에 새로운 개혁의 움직임이 보여 진다. 이러한 입시 정책 운용 상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입시 전형을 갖추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과 동일하게 오랫동안 과도한 수험 경쟁에 고민해 온 한국에서도 최근 대학 입시의 개혁에 대처가 진행하고 있다. 추천 입학의 확대나 AO입시의 도입 등 대학입시에 있어서 새로운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으면 한다.

나) 전형 유형 상의 시사점(상대적 비중 포함)

일본의 입시 전형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대학입시 센터 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 이외에도 학생들이 이수한 교과과정의 수준과 비교과활동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서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을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점이 있다. 끈기, 추진력, 창의력, 독창성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신중한 고려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나 대학입시 센터 시험 점수가 보여줄 수 없는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 대학 진학률과 대입 문화가 주는 시사점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2013년 기준으로 50.8% 정도이며 일부 인기 있는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입시 경쟁율이 크게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다.

문부과학성의 자료를 보면 2013년 대학 수험자는 약 72만명 이고 이중에 진학자는 약 67만명 이었다. 이는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학업성취도에 상관없이 최소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곧 전인교육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라) 고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 주는 시사점

종래의 센터 시험은 많은 대학이 입학 선발 시험에 1차 시험으로 지정하고 있어 대학 수험생의 제1관문으로서의 위치가 부여되어 있었지만 「1점단위의 한변승부」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수험생에게 부담이 된다는 등의 관점으로부터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2013년10월 정부의 교육재생실행 회의는 센터 시험을 대신해 새롭게 복수의 수험 기회가 주어지는 「달성도 테스트」를 마련한다고 하는 개혁안을 제출하고 있다. 「달성도 테스트」는 「기초」·「발전」의 2종류가 마련되어질 예정이고 「기초」는 고교재학중의 정착도를 볼 목적으로 「발전」은 종래의 센터 시험과 동일하게 「대학이 입학자를 선발 할 때 기초자격으로 한다」라고 할 목적이 상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기초」는 고교2학년에 가서 복수 수험할 수 있어 추천입시·AO입시에 이용되고 「발전」은 현행의 센터시험과 동일하게 일반입시의 요소로서 이용할 수 있지만 1점단위의 점수제가 아니고 A랭크부터 D랭크 등과 같이 단계적 랭킹메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었다. 이것은 현행 한번의 대학입시 센터시험으로부터 복수시험으로 바뀌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바탕을 둔 시험으로 개혁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고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사료 된다.

4.2 내신 산정 및 결과 활용 상의 시사점

가) 교과영역 상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고등학교들의 경우를 보면 오사카 건국고등학교는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높은 심화과정과 우등반 코스를 다수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고베 게이메이학원고등학교는 간세이가쿠잉대학에 전원 추천입학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다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자신의 미래의 전공이나 직업에 필요한 교과목 또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상대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나) 비교과영역 상의 시사점

일본의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서나 비교과 활동의 실적을 증명할 수상 실적 등을 통해 입시 전형에서 비교과활동이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까지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보다 적격인 지원자를 선발할 기회를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나친 점수 경쟁의 부담을 덜고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이나 직업에 관련된 비교과활동을 내실 있게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3 대학별 고사 실시 및 결과 활용상의 시사점

일본에서의 대학별 고사를 살펴보면 입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센터 시험과 2차 시험을 보는 국공립대와 일반 입시와 추천 입시 그리고 AO입시를 치르는 사립대학이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대학별 고사에서는 내신 성적을 평가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반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을 대학별 고사의 중요한 전형 요소로 포함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4.4 국가 수준의 시험 실시 및 결과 활용상의 시사점

일본에서는 국가표준화 시험인 센터 시험을 입시에 반영 하는 대학이 많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입시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능이 대학수학 능력을 평가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 된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고자 하면 고등학교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이라면 추가적인 학업 부담 없이 표준화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繁榘算男 외(2014). 새로운 시대의 대학입시. 金子書房.
- 佐々木隆生(2012). 대학입시의 종언(終焉)-고대접속테스트에 의한 재생. 홋카이도대학출판부.
- 고형일(2006),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숙(2008),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V)-대입 전형 요소와 대학수학능력의 관계, 한국교육개발원
- 남혜영(2002),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 변천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실 외(2003). 대학입학제도의 운영 실상과 영향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 2003-04.
- 박영창(2002),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중심으로, 동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희(2010), 대입제도 3불정책 경과 및 쟁점분석, <http://blog.naver.com/goright21>
- 안선희(2009), 입학사정관제도_문제점및대안 안선희, <http://blog.naver.com/goright21>
- 이홍렬(2002), 한국의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홍대(1999),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영 외(2008), 미래교육정책 어젠다, 한국교육개발원
- 양영유, 학생 선발 자율권 인정해야 반대, 국회보(2007년 6월) pp.62-6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8),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침서 개발 연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8),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

<참고사이트 >

-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 독립행정법인 통계센터 <http://www.e-stat.go.jp/>
- 독립행정법인 대학입시센터 <http://www.dnc.ac.jp/>
- 간세이가쿠인대학 <http://www.kwansei.ac.jp/>
- 고베대학 <http://www.kobe-u.ac.jp/>
-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webhome/Home.do>
- 예비교정보 비교사이트 <http://www.prep-school.info/alcarte-entrance-exam.html>

교육재생실행회의 <http://www.kantei.go.jp/jp/singi/kyouikusaisei/>

백두학원 <https://keonguk.ac.jp/>

게이메이학원 <https://keonguk.ac.jp/>

(大阪観光大学 観光学部)

kim0120sd@hotmail.com

韓国語教育研究（第11号）

2021年9月15日 発行

発行者 文 慶喆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金世徳、柳朱燕

印刷所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